

칼날

■ 제목: 칼날

■ 시놉시스

석도는,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한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기득권에게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고 싶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감독이 됐다. 돈 안 되는 이슈만 조명하는 독립다큐멘터리 감독이었지만, 자신의 책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후배이자 조연출인 영은이 자꾸만 탄지를 건다.

■ 기획의도

악인에게 들이댄 칼날이, 어찌면 거울을 향해 있다.
그렇다고 나를 찌르자는 것도, 칼을 내려놓자는 것도 아니다.
그저 인정하자는 것.
대책은, 명확한 현실 인식에서 시작하니까.

■ 등장인물

- 석도: 독립다큐멘터리 감독, 남, 29세.
- 영은: 석도의 다큐 제작을 도와주는 조연출, 여, 27세.
- 정숙(여): KN기업 하청회사에서 일하던 중 동료가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산재사고의 진상규명을 하는 석도의 다큐멘터리 인터뷰에 참여했다. 여, 40대 중후반.
- 민경(여): KN기업 홍보팀 직원, 30대 초반.

S#1. 사무실 안 / 저녁 6시쯤

정숙(여, 40대 중후반)의 눈, 입, 만지작거리는 손, 불안정해 보이는 발 등 C.U.

정숙 사실 아직도 안 믿겨요.
 지금 당장이라도, 일 끝나고 치맥하러 가자 할 것 같은데...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로 뉴스 났다고, 너무 놀랐다고..
 같이 하소연하고 싶은데...
 (잠깐의 정적) 근데...미영언니 그렇게 된 거기서...
 저 아직도 밥 벌어먹고 있어요.

석도(v.o.) 사고가 일어난 작업현장은 달라진 게 있나요?

석도의 목소리가 들리자 카메라 시선으로 줌아웃(Zoom Out)되고
인터뷰이의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작업복을 입은 정숙이다.

정숙 저희 관리자님 짤리고.
 본사에서는 근무시간 줄이라고 지침 내려왔는데.
 작업량은 그대로니까...

공간에는 “KN기업 OUT” “산업재해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라” “불법하도급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일하다 죽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대책 마련하라” 등의 팻
말이 붙어 있다.

서서 정숙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영은(다큐멘터리 조연출, 여, 27세)**과
의자에 앉아 정숙에게 질문을 던지는 **석도(다큐멘터리 감독, 남, 29세)**가 보인다.

석도 후속대책 마련하겠다고 한 언론 인터뷰랑은 많이 다르네요.

정숙 관리자님 새로 왔어도 뭐.
 오히려 새로 오셔가지구. 저희가 알려드려야 하니까.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석도 관련해서 KN쪽도 취재 중이에요.

정숙 네. 그리고 저는 모자이크 꼭 부탁드립니다.

석도 걱정 마세요. 저희도 독립다큐라서,
 파장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정숙 독립다큐요?

영은 네. 그 저예산으로 제작하는...

정숙 아... (고민하다가) 그럼 혹시 제가
 얼굴 드러내고 하면 좀 더 영향력 있을까요?

석도 아무래도 더 신빙성 있긴 할 텐데.
정숙 그럼...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석도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시고
괜찮겠다 싶으시면 저희 조연출에게 연락 주세요.
저희도 최대한... 이슈 묻히지 않도록.
다큐 잘 만들어 볼게요.
영은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촬영이 마무리된 분위기.
영은은 정숙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준다.

정숙 네...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고 났을 땐 언론 여기저기 연락 와서 정신 없었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럼 저 교대 때문에 먼저 가볼게요.

정숙은 사무실을 나가고.
영은은 마이크와 카메라 장비 등을 정리한다.

석도 (혼자 생각에 빠져 있다가)
KN에서 뭐라고 반박할지 궁금하네.
내일 거기 홍보팀 관계자 미팅 몇시?
영은 저녁 6시.
석도 그래?
영은아 혹시 오늘꺼 프리뷰 내일 1시쯤까지 줄 수 있어?
영은 나 내일 오전에 알바 있는데.
석도 아...그럼.. 오늘 저녁엔 약속 있나 혹시?
영은 아. 뭐 오늘 집 가서 할 수 있긴 한데.
(스마트폰 시계를 확인하더니) 좀 늦게? 새벽 3시 넘어서?
석도 어 괜찮아. 나 어차피 야행성이라 괜찮아.
영은 ... (떨떠름하게) 그래 알았어.
석도 영은아 고맙다. 배고픈데 밥 먹고 갈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영은 (생각해 보다가) 그냥 밥 종류?

S#2. 분식점 / 저녁

떡볶이, 라면, 김밥이 차려져 있는 분식점 테이블.
영은은 김밥만 먹고 있다.

석도 (라면을 호로록 먹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났는지)
기업에 가려버린 산재 노동자. 어때?
영은 뭐가?
석도 우리 다큐 제목.
영은 너무 길지 않아?
석도 기업이 은폐한 산재 노동자.
영은 한 글자 줄었는데?
석도 아... 너는 뭐 생각난 거 없어?
영은 선배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선배 다큐데.
석도 기업의 빛과 그림자?
영은 아. 너무 뻘하다. 차라리... 그림자 인간?
석도 오. 그림자 인간, 부제 산재 노동자.
(혼자 심취한 듯) 그림자 인간... 오 괜찮다.
영은 뭐야. 그림자 인간 하는 거야? 선배. 이 다큐에 내 지분 크다.
석도 타이틀 만든 사람, 엔딩 크레딧 올려줄까?
영은 일이나 좀 덜 시켜.

S#3. 카페 / 초저녁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석도, 영은 그리고 KN 홍보팀 직원인 민경.
날씬하고 세련된 민경의 모습에 석도는 괜히 눈길이 간다.

민경 (명함을 건네며) KN 홍보팀 최민경이에요.
영은 아, 저는 명함이 아직 없는데.
제가 연락드렸던 조연출 한영은이에요.
(석도를 소개하며) 이쪽은 정석도 감독님.
석도 (민경에게 악수를 건네며) 안녕하세요.
민경 아 감독님이 따로 계셨구나.
영은 네. 제가 문자에 조연출이라고...

모두 자리에 앉아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

민경 아... 저도 정신이 없어서...
석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구요.

저녁은, 아직 못 드셨죠?
 민경 ..네...
 영은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다큐도 최대한 양쪽 입장 들어보고
 균형적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KN쪽 공식 보도랑
 현장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민경 아시다시피 저희도 일단 책임자 경질했구요.
 후속 대책은 일단 내부 논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입장을 내는 게...
 저도 굉장히 곤란한데...
 석도 그쵸. 지금 민경씨도 KN 소속이시긴 하지만
 민경 저도 일개직원이에요.
 계속 이렇게 연락하고 입장 요구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홍보팀 직원으로서,
 그거 하나 못 막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S#4. 카페 앞 / 초저녁

미팅을 끝내고 헤어지는 석도, 영은, 민경.

민경 그럼... 저희 내부에서도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석도 네 알겠습니다. 집은.. 멀리 사세요?
 민경 네 좀...
 영은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경은 먼저 자리를 떠나고.

영은 뭐 예상했던 반응이네.
 석도 아... 아무래도 추가 취재 필요하겠다.
 영은 그치. 사건 축소할라고
 계속 논의 중이다 어쩐다 미루는 것 같지?
 석도 그니까.. 더 알아봐야겠네.
 영은 아니면 다른 팀 좀 물어볼까?
 석도 (영은의 말은 듣는 등 마는 등) 그 민경씨? 번호 좀 알려줄래?
 영은 이번엔 선배가 직접 하게?
 석도 어, 뭐, 아무래도 곤란한 입장인 것 같아서.

영은 출연자 관리까진 벅차다더니. 진작 좀 글케 하지.

S#5. 석도의 작업실 / 저녁

석도의 작업실에 온 영은. 그곳에서 나오는 민경을 발견한다.

민경의 머리가 왜인지 헝클어져 있다.

서로 멧쩍게 인사를 하고, 석도의 작업실에 들어간 영은.

석도 뭐야 웰케 일찍 왔어.

영은 선배. 최민경씨 뭐야?

석도 아 마주쳤어? 다큐 설명 좀 해주느라.

영은 그걸 편집실에서? 아직 보여줄 영상도 없잖아.

석도 아 뭐 그냥.

영은 (석도의 바지 앞 자크가 열려있고, 휴지통 속 콘돔을 발견하고는)

야, 선배. 여친한테 어떡할라 그러냐?

석도 뭐가. 진짜 다큐 설명만 했어.

영은 (휴지통에 눈길을 두며) 저거나 치우고 거짓말 해.

석도 (귀찮다는 듯) 영은아 그만하자.

영은 선배, 선배 스스로 이 다큐 찍을 자격 있다 생각해?

석도 뭐 자격? 너 선 넘는다.

영은 노동자 존중, 약자 배려. 이런 얘기하는 거 안 찢리냐고.

석도 영은아. 너 혹시 나한테 마음 있니?

영은 뭘 소리야. 자백도 그만 좀 제발.

석도 그런 거면 미안해. 나는 진짜 너 좋은 동료야.

영은 선배, 진짜 솔직한 얘기가 듣고 싶어?

석도 그래. 네 자존심 알겠는데. 그냥 솔직해져.

거짓말하는 게 더 비겁한 거야.

영은 나 사실 선배 같은 캐릭터 구상하고 있었어.

겉으로는 고상한 척, 정의로운 척 있어 보이는 말 번지르르하면서

정작 지 생활은 안 그런 사람. 모순 덩어리.

덕분에! 가까서 취재 제대로 했네.

석도 뭐 취재?

영은 선배 어차피 나 페이도 안 줄 거였잖아. 무급노동이나 시키고.

이거라도 얻어가야지.

석도 야 너 똑바로 말해. 뭘 소리야?

영은 선배가 세상에 들이대는 그 고상한 잣대.

그걸 선배 스스로한테 들이대 봐. 과연 떳떳한지.

석도 뭔 소리야.
영은 나중에 내 영화 나오면, 그거 선배 애긴 줄 알아.

마지막 말을 남기고 획 자리를 떠나버리는 영은.

S#6. 길거리 / 저녁

터벅터벅 길을 걷어가는 영은. 메시지 알람이 울린다.

- 정숙의 메시지)

저 모자이크없이 제이름으로 나갈게요. 여기 그만둘라구요.
미영언니 같은 피해자. 또안나오는게 중요한것같아요.

영은, “저 이제 그 다크 참여 안 하게 됐”이라고 메시지를 지웠다가 다시 쓰고.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라고 또 썼다가 지운다.

S#7. 사무실 / 낮

석도 지면인터뷰를 하고 있는 여 기자.

여 기자 감독님 다크는 우리 사회에 소외된 자들.
 소수자와 약자의 이야기를 대변해 오셨는데.
 이번에는 극영화를 제작하신 이유가 뭔가요?

석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가 악인에게 들이대는 칼날,
 그 칼날이 어찌면 거울을 향해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여 기자 인간의 이중성, 모순이라고 보면 될까요?

석도 네 그렇죠. 세상을 비판하던 그 지점이.
 나 자신에게도 있더라구요.

여 기자 재밌는 지점이네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찌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석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해치자는 것도,
 칼을 내려놓자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의 모순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책은 바로 여기서.

여 기자 명확한 현실 인식에서 시작하니까요?

석도 네 바로 그거예요.

(사적으로 다가가는 듯, 분위기를 전환하며)
기자님, 저녁은 드셨어요?

S#8. 영은의 자취방 / 밤

편한 차림으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양치를 하고 있는 영은.
메시지 알림이 울려서 확인해 보는데.

- 영은의 메시지 단톡

(동료1) 야 석도 선배 이번 다큐 영화제 3관왕했대.

(동료2) 이번에 손석구랑도 다큐 찍는다던데?

(동료3) 근데 나도 석도 선배 영화 보고 소름돋았잖아.

(동료1) 그니까. 신과 다큐인 줄 알았는데, 반전 대박.

(동료2) 맞다 영은. 너 이번에 영화 촬영한 거 영화제 냐어?

영은 하 씨발.